

張戒 《歲寒堂詩話》의 唐宋 詩人論

이 치 수*

— <目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宋代의 詩人 評價 |
| II. 唐代의 詩人 評價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南宋 初期에 살았던 張戒의 《歲寒堂詩話》는 詩에 관한 論議가 비교적 體系의이고 全面的이어서 宋代의 여러 詩話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이 평가받는 著作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장계의 《歲寒堂詩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杜甫 등의 시인에 대한 비평을 살피기도 하고, ‘意氣’, ‘中的’ 등의 주요 관점에 대해 논하기도 하며, 다른 詩話(이를테면 《滄浪詩話》, 《苕溪漁隱叢話》 등)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歲寒堂詩話》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를 하기도 하며, 《歲寒堂詩話》의 문학이론의 가치와 공헌에 대해 고찰하기도 하였다.¹⁾ 《歲寒堂詩話》에서 張戒는 자신의 詩學的 견해를 바탕으로 歷代의 여러 詩人들을 논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論議를 통하여 자신의 詩學 主張을 제시했다.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대체로 62명의 시인과 4종류의 작품집과 작품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金華, <<歲寒堂詩話>의 詩學研究現狀>(《重慶第二師範學院學報》 2014年 第5期) 참고.

들을 擧論하였는데, 특히 唐代와 宋代의 詩人들을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그러면 張戒는 중국 古典詩의 成熟期라고 불리는 唐과 宋의 시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궁금한 마음이 생겨난다. 張戒의 《歲寒堂詩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는 張戒가 역대의 시인들을 평하면서 唐代를 推仰하고 宋代는 貶下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 張戒의 평이 과연 崇唐 貶宋의 二分法的인 것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張戒의 시론을 이해하는 데에 분명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존의 연구 중에는 張戒가 ‘世代가 지날수록 以前만 못하다(一代不如一代)’는 문학 발전의 退化觀을 주장했다는 견해도 있다.³⁾ 이상의 몇 가지 점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張戒가 《歲寒堂詩話》에서 주요 비평의 대상이 되는 唐代와 宋代의 시인들에 대해 詩史의 전개에 따라 時期別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하였는지, 단지 한 두 시인, 또는 몇 사람의 경우만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張戒의 詩論 주장과 입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II. 唐代의 詩人 評價

張戒의 《歲寒堂詩話》는 卷上和 卷下の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卷下에서는 오로지 杜甫의 시를 논하였으며, 卷上에서는 先秦에서 宋代까지 각 朝代의 시인들을 평하였다. 唐代의 경우는 시기별로 볼 적에 初唐의 시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고, 盛唐엔 李白, 杜甫, 王維,

2) 이를테면 王水照·熊海英의 《南宋文學史》(人民出版社, 2009)에서는 ‘揚唐抑宋’이라 하였고(393쪽), 金華는 ‘尊唐黜宋’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論《歲寒堂詩話》的文學退化觀〉, 《作家》 2015年 第6期, 184쪽), 陳良運의 《中國詩學批評史》(江西人民出版社, 1995)는 張戒의 《歲寒堂詩話》와 嚴羽의 《滄浪詩話》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두 책 모두 “漢魏·盛唐詩를 尊重하고 宋代의 詩를 輕視하였으며 특히 江西詩派를 貶下하였다(尊漢魏盛唐詩而輕本朝詩, 尤貶江西詩派)”고 지적했다.(379쪽)

3) 金華, 〈論《歲寒堂詩話》的文學退化觀〉(《作家》 2015年 第6期), 183쪽.

孟浩然, 中唐엔 韓愈, 元稹, 白居易, 張籍 등의 시를 논했으며, 晚唐의 경우는 杜牧, 李商隱, 溫庭筠 등에 대해서 평하였다. 아래에서는 時期別로 각 시인들에 대한 張戒의 논평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盛唐

1) 李白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李白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우선, 張戒는 《歲寒堂詩話》를 시작하면서 卷上의 第1條에서 ‘詩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시는 오로지 뜻을 말한다(詩專以言志)”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에서 오로지 사물만을 읊조리는(詩專以詠物) 시인들은 비판적으로 보았으며,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시인으로 李白과 杜甫를 들면서 찬사를 보냈다.⁴⁾

이어서, 《歲寒堂詩話》 卷上 제2조에서 張戒는 李白 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評語를 인용, 소개하면서 李白의 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李白과 杜甫 이후, 後代의 詩壇에는 이 두 사람의 시에 대한 優劣論爭이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中唐 때의 元稹 같은 경우 이미 여기에 주목을 하고, “詩인이 있는 이래로, 일찍이 杜甫 같은 사람은 없었다.(自詩人以來, 未有如子美者)”라고 말하면서, 李白이 杜甫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張戒는 이러한 揚杜抑李說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李白과 杜甫의 시는 優劣을 논할 수 없다는 韓愈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李白의 시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여러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黃庭堅이 李白의 시를 평하면서 ‘漢, 魏의 樂府와 優劣을 겨룰 만하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李白을 아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⁵⁾ 宋代에 들어 杜甫 시와 李白 시의 평가 문제가 많은 詩人과 평론가

4) 陳應鸞, 《歲寒堂詩話箋注》, 四川大學出版社, 1990, 33쪽. 建安、陶、阮以前, 詩專以言志; 潘、陸以後, 詩專以詠物; 兼而有之者, 李、杜也.

5) 같은 책, 39쪽. 魯直云: “太白詩與漢、魏樂府爭衡”, 此語乃眞知太白者.

들의 주요 관심 사항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위의 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에 관한 張戒의 입장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歲寒堂詩話》 卷上 제10조에서 張戒는 또 중국의 역대 시가를 논하면서 중국의 고전시가 “李白과 杜甫에 이르러 완성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중국 詩史에서 차지하는 李白 시의 높은 성취를 지적했다.

《歲寒堂詩話》 卷上 제4조에서 張戒는 歷代 여러 뛰어난 시인들의 특색을 거론하면서 李白, 杜甫, 韓愈의 ‘才力’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韓愈는 우뚝 솟아 기이한 자태를 좋아하였는데 이것은 그래도 배울 수 있지만, 李白의 시에는 天仙의 말이 많은데 이것은 미칠 수 없다.”고 평했다.⁶⁾

이상에서 보듯이, 張戒는 李白의 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杜甫와 나란히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唐代 이후 宋代에 이르러서도 계속 李白과 杜甫의 優劣論이 제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와 관련하여 李白과 杜甫 시의 평가 문제를 다시 살피며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2) 杜甫

《歲寒堂詩話》은 卷上の 36개 條項에서는 杜甫를 비롯하여 여러 시인들의 시를 다루었으며, 卷下の 33개 條項은 오로지 杜甫의 시에 대해 논했다. 張戒의 杜甫 평은 분량이 많으며 내용도 여러 방면에 이르고 있다.

① 詩의 本質

張戒는 《歲寒堂詩話》 卷上 제1조에서 시의 본질과 관련하여, “뜻을 말하는 것[言志]이 바로 시인의 근본 생각이고, 사물을 읊조리는 것[詠物]은 단지 시인의 餘事이다.”라고 생각하였다. 張戒가 보기에, 阮籍 이전의 옛날 시는 감정이 진실되고 맛은 悠長하며 氣가 뛰어났으나, 潘岳과 陸機

6) 같은 책, 46쪽. 杜子美、李太白、韓退之三人, 才力俱不可及, 而就其中退之喜崛奇之態, 太白多天仙之詞, 退之猶可學, 太白不可及也.

이후에는 전적으로 사물을 읊조리는 데에만 뜻을 두어, 새기고 꾸미는 정교함은 날로 증가하지만 ‘시인의 본래 뜻은 쓸어낸 듯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후, 唐代에 이르러 言志와 詠物을 겸한 시인으로 李白과 杜甫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고전시는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② 詩教

《歲寒堂詩話》 卷上 제36조에서 張戒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길, “《詩經》 삼백 편의 시를 한마디로 개괄해서 말하면 ‘생각에 邪惡함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毛詩序〉에 말하기를, “詩란 뜻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나타내면 시가 되니, 情이 가슴속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올바른 것은 적고 사악한 것이 많다. 孔子께서 《詩經》의 시를 간추리면서 생각이 사악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였을 따름이다.”⁷⁾

이것을 보면 張戒의 言志說이 孔子와 〈毛詩序〉 등의 儒家 詩教說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卷下 제10조에서는 儒家 詩教說에 의거하여 杜甫와 李白 시를 비교하였다. 杜甫의 〈乾元中寓居同谷七歌〉를 예로 들면서, 杜甫와 李白은 才氣는 비록 莫上莫下이지만, 杜甫는 홀로 孔子가 《詩經》 시를 간추린 본래의 뜻을 얻었기에 그의 시는 《詩經》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은 李白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평했다.⁸⁾ 張戒가 생각건대, 杜甫 시의 장점과 특색은 孔子의 詩教를 잘 계승한 데에 있는 것이며, 孔子가 말하고 〈毛詩序〉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杜甫 시에서 볼 수 있다고

7) 같은 책, 109쪽. 孔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 《詩序》有云: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于中, 而形于言……” 其正少, 其邪多. 孔子刪詩, 取其思無邪者而已.

8) 같은 책, 130쪽. 杜子美、李太白, 才氣雖不相上下, 而子美獨得聖人刪詩之本旨, 與《三百五篇》無異, 此則太白所無也.

보았다.

③ 氣勝

《歲寒堂詩話》 卷上 제1조에서 張戒는 뛰어난 시인의 시가 갖고 있는 요소로 意, 味, 韻, 氣의 네 가지를 들면서, 杜甫의 시는 전적으로 氣가 뛰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韻에 高下가 있고, 氣에 強弱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韓愈의 文과 曹植, 杜甫의 시에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까닭이다.”⁹⁾라고 말했다. 또 제4조에서는 “意와 氣에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杜甫가 그러하다.”¹⁰⁾고 하여 두 항목에서 모두 杜甫의 시가 氣에서 뛰어나다고 평했다. ‘氣’는 시인의 性格과 氣質 특색, 사상적 志向,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작품 중에 나타나 형성된 종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卷下 제33조에서는 杜甫의 〈可歎〉시를 논하면서 ‘忠義의 氣’와 ‘文辭의 氣’에 대해 아주 높이 평했는데, “杜甫의 이 시를 보면, 古今의 시인들이 杜甫만 못함을 어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忠義의 氣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 ‘아주 급작스러운 때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었고, 위급한 상황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었다.’ ‘말을 해도 부족하기에 탄식을 하고, 탄식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기에……’ 그래서 그 文辭의 氣가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孔子가 없어 〈國風〉과 〈雅〉와 〈頌〉 속에 넣지 못하는 것이 恨스러운 따름이다.”¹¹⁾라고 말했다. 卷下 제7조에서는 〈洗兵馬〉시를 논하면서 杜甫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히 지극하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杜甫는 忠義에 敦篤하고 經術에 깊기 때문에 그의 시가 雄渾하고 바르다.”¹²⁾는 총

9) 같은 책, 33-34쪽. 杜子美詩, 專以氣勝. …… 若夫韻有高下, 氣有強弱, 則不可強矣. 此韓退之之文, 曹子建, 杜子美之詩, 後世所以莫能及也.

10) 같은 책, 46쪽. 意氣有不可及者, 杜子美是也.

11) 같은 책, 158쪽. 觀子美此篇, 古今詩人, 焉得不伏下風乎? 忠義之氣, 愛君憂國之心, “造次必于是, 顛沛必于是”. “言之不足, 嗟嘆之, 嗟嘆之不足……” 故其詞氣能如此. 恨世無孔子, 不列於《國風》、《雅》、《頌》爾.

12) 같은 책, 73쪽, 卷上 제15조. 子美篤于忠義, 深于經術, 故其詩雄而正.

평을 내렸다.

④ 詩歌 特色

張戒는 杜甫가 作詩法에서 用事를 아주 잘하였다고 보았으며,¹³⁾ 詩語에 있어서 杜甫가 粗野하고 俗된 말을 잘 사용한 점을 주목하였다. 卷上 제1조에서 말하길, 세상 사람들은 단지 杜甫의 시에 粗野하고 俗된 말이 많다는 것만을 보지만, 粗野하고 俗된 말이 詩句에서는 가장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데, 粗野하고 俗된 것이 아니라 高古의 극치이며, 曹植과 劉楨이 죽은 뒤 지금까지 천년이 흘렀는데, 오직 杜甫 한 사람만이 이것을 잘하였다고 하여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宋代에 들어 文學批評界에서는 ‘雅俗論’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去俗’이나 ‘以俗爲雅’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시인들도 창작에서 俗語의 運用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대에 들면서 杜甫와 그의 시에 대한 推仰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는데, 杜甫와 이 俗語의 運用을 연결지어 그 특색을 지적한 사람은 張戒 이전에는 없었으며, 張戒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¹⁴⁾

張戒는 시의 표현 문제에 있어서는 含蓄美를 중시했다. 卷下 제11조에서 〈昭陵〉、〈泥功山〉、〈岳麓寺〉、〈鹿頭山〉 등의 시를 거론하면서, 말로 잘 나타내기 어려운 사람들 마음속의 일을 杜甫는 말로 잘 표현했는데 말이 高雅하여, 元稹이나 白居易의 시가 깊은 맛이 없고 淺近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詩味와 餘韻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張戒는 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詩語를 自由自在로 구사, 運用하는 杜甫의 탁월한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王安石은 단지 巧妙한 말만이 시가 되는 줄 알았을 뿐, 拙劣한 말 또한 시가 되는 줄은 몰랐다. 黃庭堅은 단지 奇妙한 말만이 시가 되는 줄 알았

13) 같은 책, 44쪽, 卷上 제3조, 詩以用事爲博, 始于顏光祿, 而極于杜子美.

14)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雅俗論의 背景과 특색 연구〉, 《中國語文學》 제77집, 2018, 52쪽.

을 뿐, 日常의 말 또한 시가 되는 줄은 몰랐다. 歐陽修의 시는 오로지 뜻을明快하게 나타내는 것을 위주로 했고, 蘇軾의 시는 오로지苦心하여 工巧로운 표현을 만들었으며, 李商隱의 시는 단지 黃金과 玉과 龍과 鳳凰만 있는 줄 알았고, 杜牧의 시는 단지 곱고 아름다운 비단옷과 麝脂와 粉만 있는 줄 알았으며, 李賀의 시는 단지 꽃과 풀과 별과 나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직 杜甫만은 그렇지 않았다. 山林에 있으면 山林을 노래했고, 朝廷에 있으면 朝廷을 노래하였으며, 工巧로운 것을 만나면 工巧로움을 노래하고, 拙劣한 것을 만나면 拙劣함을 노래했으며, 奇異한 것을 만나면 奇異함을 노래하고, 俗된 것을 만나면 俗됨을 노래하였는데, 때로는 펼쳐 놓고, 때로는 거두어들이며, 때로는 새롭고, 때로는 낡은데(詳考컨대, 《說郛》版本에는 ‘或刻或奮’으로 되어 있음.), 모든 사물, 모든 일, 모든 뜻이 시가 아닌 것이 없었다.¹⁵⁾

위의 인용문을 보면 唐과 宋의 여러 시인들은 모두 어떤 特定 말에만 특히 주목하여 그것을 詩語로 운용한 데에 비해, 杜甫는 이와 달리,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處한 處所나 상황 등에 따라 자유자재로 詩語를 운용하고 자유로이 표현하며, 가슴속 감정을 자연스럽게 시로 나타내었는데, ‘모든 사물, 모든 일, 모든 뜻이 시가 아닌 것이 없었다.’ 杜甫의 이러한 작시 태도 및 특색은 바로 ‘活法’에 가까우며, 나아가 ‘無法’이라고도 할 수 있다. 張戒가 살았던 宋代에는 많은 사람들이 詩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黃庭堅과 그를 추종하는 江西詩派의 시인들은 이 法度 문제에 민감하며 새로운 作詩法을 추구하였지만, 동시에 여기에 얽매이는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이에 呂本中은 직접 ‘活法’을 제시하여 이러한 詩壇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이후 陸游, 楊萬里 등은 실제 창작을 통하여 새로운 표현을 추구했다.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活法’이란 말을 직

15) 같은 책, 107-108쪽, 卷上 제35조, 王介甫只知巧語之爲詩, 而不知拙語亦詩也. 山谷只知奇語之爲詩, 而不知常語亦詩也. 歐陽公詩專以快意爲主, 蘇端明詩專以刻意爲工, 李義山詩只知有金玉龍鳳, 杜牧之詩只知有綺羅脂粉, 李長吉詩只知有花草蜂蝶, 而不知世間一切皆詩也. 惟杜子美則不然, 在山林則山林, 在廊廟則廊廟, 遇巧則巧, 遇拙則拙, 遇奇則奇, 遇俗則俗, 或放或收, 或新或舊(案: 《說郛》刊本作‘或刻或奮’), 一切物, 一切事, 一切意, 無非詩者.

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詩壇의 상황을 목도하고 杜甫 시를 통하여 處方藥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杜甫詩의 眞髓

杜甫 시는 사실 唐代에는 후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지 못하다가 五代를 거쳐 宋代에 들어선 이후,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杜甫와 그의 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칭송이 잇따랐다. 詩壇에 杜甫 시의 학습 풍조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張戒는 杜甫의 시가 古今의 여러 시인들의 훌륭한 점을 집대성하였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당연히 杜甫의 시를 典範으로 삼아야 된다고 굳게 믿었다. 張戒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杜甫 시의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呂本中과의 對話 속에 잘 드러나 있다. 卷上 제30조에 의하면, 한번은 張戒가 桐廬에서 呂本中을 만나, 黃庭堅이 杜甫 시의 眞髓를 얻었는지 與否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張戒가 보기에 杜甫의 다른 시들은 黃庭堅도 지을 수 있지만, 〈壯遊〉나 〈北征〉, 〈新安吏〉 등과 같은 시는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黃庭堅이 杜甫 시의 眞髓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張戒는 卷上 제30조에서 杜甫 시의 가치와 특색을 파악하는 데에 黃庭堅이 상당한 공을 세웠음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杜甫의 〈壯遊〉나 〈北征〉, 〈新安吏〉 등과 같이 安史의 亂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인 杜甫 자신이나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생활과 사회의 모습 등을 노래하는 현실주의 경향의 시 같은 것을 黃庭堅은 지을 수 없다고 張戒는 생각했다. 따라서 張戒가 보기에, 黃庭堅은 杜甫 시의 格律만을 얻었을 뿐, 정작 眞髓는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사실 宋代에는 많은 사람들이 杜甫의 시를 칭송하고 학습하였지만 杜甫 시를 과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많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張戒의 學杜 眞髓論은 시대적 의의를 지니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질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많은 분량을 통하여 杜甫 시의 특색을 다방면에서 논의하면서 杜甫 시를 典範으로 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張戒는 李白와 杜甫의 優劣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몇 가지 조항에서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張戒는 결국 개인적으로는 杜甫의 시를 더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3) 孟浩然

張戒는 孟浩然에 대해 蘇軾의 말을 인용하여, 孟浩然의 시는 마치 皇宮의 창고에 있는 法酒와 같아 윗자리에 놓는 술잔으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단지 이 술을 만드는 재능이 결핍되어 있다고 평했는데,¹⁶⁾ 張戒가 시인들을 평가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才力’이다.

4) 王維

王維에 대해 張戒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王維의 律詩는 杜甫와 견주고 古詩는 李白에 견주는데, 대체로 王維의 고시는 사람의 마음 속 일을 잘 말해내면서 筋骨을 드러내지 않으며, 율시는 지극히 아름답고 노련하고 성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王維의 고시가 ‘사람의 마음 속 일을 잘 말해내면서’라고 한 것은 시는 言志를 근본으로 한다는 본질에 맞는 것이며, ‘筋骨을 드러내지 않으며’라고 한 것은 솜씨를 중시하는 張戒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다. 王維의 율시는 지극히 아름답고 노련하고 성숙하여 文彩가 뛰어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어서 “비록 才氣는 李白과 杜甫처럼 雄傑하지 않지만 시에 意의 味를 나타내는 工夫는 그들과 맞먹는다.”라고 하여, 王維의 시가 예술적 美感의 표현에 뛰어나고 보았다.¹⁷⁾

16) 같은 책, 80쪽, 卷上 제20조, 子瞻云: “浩然詩如內庫法酒, 却是上尊之規模, 但欠酒才爾.”

17) 같은 책, 82-83쪽, 卷上 제22조, 世以王摩詰律詩配子美, 古詩配太白, 蓋摩詰古詩能道人心事而不露筋骨, 律詩至佳麗而老成. …… 雖才氣不若李、杜之雄

盛唐 시기에 대한 張戒의 논의는 李白과 杜甫의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孟浩然과 王維에 대해서도 각기 그들의 특색을 파악하여 지적했다.

2. 中唐

1) 韓愈

張戒는 韓愈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半半인데,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사 杜甫라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韓愈는 본래 시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고 여겨, 陳師道 같은 사람들부터 이미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張戒는 이 두 부류 사람들의 논의가 모두 매우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杜甫도 韓愈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韓愈가 본래 시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어찌 쉽사리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反問을 던지면서, 韓愈의 시는 才氣가 넉넉하다고 보았다.¹⁸⁾

張戒는 또 蘇轍의 말을 인용하여, “唐나라 사람의 시는 마땅히 韓愈와 杜甫를 추앙하여야 하니, 韓愈의 시는 豪放하고 杜甫의 시는 雄渾한데, 杜甫의 옹혼은 오히려 韓愈의 호방을 겸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이 견해에 찬동을 표시했다.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杜甫는 忠義에 敦篤하고 經術에 깊기 때문에 그의 시는 雄渾하면서 바르고, 李白은 任俠를 좋아하고 神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시는 호방하고 飄逸하며, 한유는 글을 잘 지어 벼슬을 하기 때문에 그의 시와 문장에는 朝廷의 기운이 있는데, 韓愈의 시는 李白의 시와 대적할 수 있으나, 두 호걸이 並立할 수 없다면 마땅히 韓愈를 세 번째로 물려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⁹⁾ 여기서

傑, 而意味工夫, 是其匹亞也.

18) 같은 책, 73쪽, 卷上 제15조, 韓退之詩, 愛憎相半. 愛者以爲雖杜子美亦不及, 不愛者以爲退之于詩本無所得, 自陳無已輩皆有此論. 然二家之論俱過矣. 以爲子美亦不及者固非, 以爲退之于詩本無所得者, 談何容易耶? 退之詩, 大抵才氣有餘.

19) 같은 책, 73-74쪽, 卷上 제15조, 蘇黃門子由有云: “唐人詩當推韓、杜, 韓詩豪, 杜詩雄, 然杜之雄猶可以兼韓之豪也.” 此論得之. …… 子美篤于忠義, 深于經術,

張戒는 杜甫, 李白, 그리고 韓愈의 세 사람을 들고 있는데, 張戒와 비슷한 시기의 吳沆도 《環溪詩話》에서 고금의 여러 시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一祖二宗’說을 제시하면서 杜甫를 ‘一祖’, 李白과 韓愈를 ‘二宗’으로 든 바 있는데, 《詩經》의 風雅 전통을 계승한 시의 純正함 측면에서 거론하였다. 張戒는 위에서 보듯이 세 사람 시의 風格面에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로 간에 견해의 다른 점은 있지만, 吳沆과 張戒가 이 세 시인을 같이 든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典範觀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²⁰⁾

2) 白居易, 元稹, 張籍

白居易, 元稹, 張籍 등은 모두 中唐의 新樂府運動과 관련이 있는 시인 들인데 張戒의 이들에 대한 評價는 단순하지 않다. 우선 이들을 통틀어 비판하기를, 이들의 시는 함축적이지 않은 병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杜牧이 이르기를, “다정하지만 언제나 무정한 듯 구니, 다만 느끼네 술 잔 앞에서 웃음이 이루지지 못함을.”이라고 하였다. 뜻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의 뜻이 淺薄하고 다 드러나 餘韻이 거의 없다. 元稹, 白居易, 張籍 등의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사람 마음속의 일을 말할 줄은 알지만 모두 말하고 나면 다시 淺薄하고 다 드러나게 됨은 알지 못했다.²¹⁾

張戒는 元稹, 白居易, 張籍의 시의 병폐가 바로, “말이 너무 번거로운 결점이 있고 그 뜻이 너무 다 드러나는 결점이 있어, 마침내 쓸 데 없이

故其詩雄而正; 李太白喜任俠, 喜神仙, 故其詩豪而逸; 退之文章侍從, 故其詩文有廊廟氣. 退之詩正可與太白爲敵, 然二豪不并立, 當屈退之第三.

20) 李致洙, 〈吳沆 《環溪詩話》의 詩論〉(《中國語文論叢》 第30輯, 2006), 168-170쪽.

21) 같은 책, 51쪽. 卷上 제6조. 杜牧之云: “多情却是總無情, 惟覺尊前笑不成.” 意非不佳, 然而詞意淺露, 略無餘蘊. 元、白、張籍, 其病正在此, 只知道得人心事中, 而不知道盡則又淺露也.

길고 격조가 비루하게 될 따름이다.”²²⁾라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白居易의 〈長恨歌〉나 元稹의 〈連昌宮詞〉 같은 것은 수십, 수백 마디의 말을 하며 힘껏 묘사를 하였지만 모두 杜甫 시가 隱微하면서 婉曲한 것보다는 못하며, 杜甫의 한 구절 시만 못하다고 평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張戒는 해결 方案 또한 제시하여, ‘그 말을 거두어들이고 함축을 조금이라도 더 가할 것’을 요구했다.

張戒가 元稹, 白居易, 張籍 등의 시를 평한 말을 보면 張戒가 이들의 시를 완전히 비판하고 罵倒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張戒는 ‘사람 마음속의 일을 말하는 것’을 시가의 본질로 보고, 그가 보기에 이들의 시가 “사람들 마음속의 일을 잘 말해주는 것”은 이들 시의 장점으로 보았으며, 白居易의 시를 무조건 格調가 낮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張戒는 함축적 표현 외에 文彩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元稹과 白居易, 張籍 등의 시가 뜻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은 찬성할 만하지만 文彩가 조금 적다는 유감을 드러내며²³⁾, 張籍의 律詩는 맛[味]은 있지만 文彩가 부족하다고 평을 했다.²⁴⁾

이외에 張戒는 또 詩法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는데, 시를 짓는 법도와 格式을 미리 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았다.

白居易가 말하길, “기쁨을 말할 때는 ‘喜’자를 말해서는 안 되며, 怨望을 말할 때는 ‘怨’자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白居易는 단지 大綱만 알 따름이다. …… 시인의 뛰어난 표현은 단지 그 당시의 情의 味를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이지, 진실로 미리 法式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²⁵⁾

22) 같은 책, 76-77쪽. 卷上 제18조. 但其詞傷于太煩, 其意傷于太盡, 遂成冗長卑陋爾.

23) 같은 책, 94쪽. 卷上 제28조. 元、白、張籍以意爲主, 而失于少文.

24) 같은 책, 84쪽. 卷上 제23조. 籍律詩雖有味而少文.

25) 같은 책, 50쪽. 卷上 제5조. 樂天云: “說喜不得言喜, 說怨不得言怨.” 樂天特得其蘊爾, …… 詩人之工, 特在一時情味, 固不可預設法式也.

시인은 시를 지을 당시의 느낀 감정을 여하히 나타낼 것인가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며, 미리 法式을 정해두고 거기에 따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도 張戒가 ‘定法’에 매이는 것을 반대하고 ‘活法’을 주장함을 엿볼 수 있다.

3) 柳宗元

柳宗元의 시에 대해 張戒는 韓愈의 시와 비교하면서 특색을 평했는데, 柳宗元의 시는 글자마다 珠玉과 같아 정교하지만 韓愈 시처럼 갖가지로 모습이 변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보았다. 韓愈로 하여금 기운을 거두어들이 柳宗元의 시처럼 되기는 쉽지만, 柳宗元으로 하여금 기운을 넓혀서 韓愈의 시처럼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意와 味는 배울 수 있지만 才氣는 억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²⁶⁾

4) 韋應物

韋應物の 시에 대해서 張戒는 王維의 시와 비교하여, 韋應物の 시는 韻格이 높고 기운이 맑으며, 王維의 시는 격조가 노련하고 맛이 유장하다고 보았다. 비록 두 사람 모두 五言詩의 大家이나 서로 장단점이 있으며 優劣이 없지 않으니, 韻致로 보면 王維가 韋應物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 迫切하지 않으면서 맛이 매우 悠長한 것은 비록 韋應物일지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²⁷⁾

5) 劉長卿

張戒는 韋應物の 律詩가 古詩와 같은 데 비해, 劉長卿의 경우는 古詩가

26) 같은 책, 75쪽. 卷上 제16조, 柳柳州詩, 字字如珠玉, 精則精矣, 然不若退之之變態百出也. 使退之收斂而爲子厚則易, 使子厚開拓而爲退之則難. 意味可學, 而才氣則不可強也.

27) 같은 책, 76쪽. 卷上 제17조, 韋蘇州詩, 韻高而氣清. 王右丞詩, 格老而味長. 雖皆五言之宗匠, 然互有得失, 不無優劣. 以標韻觀之, 右丞遠不逮蘇州. 至于詞不迫切, 而味甚長, 雖蘇州亦所不及也.

律詩와 같다고 평했다. 劉長卿의 시는 韻致는 韋應物처럼 높고 간명하지 못하고, 意의 味는 王維나 孟浩然처럼 절묘하지 못하지만, 筆力은 豪放雄厚하고 기백과 품격이 老成한 점은 모두를 뛰어넘는다고 보며, 筆力과 氣格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²⁸⁾

6) 孟郊

張戒는 孟郊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세상 사람들은 賈島와 짝지어 孟郊가 寒苦함을 알보는데, 이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孟郊의 시는 寒苦한 점은 진실로 그러하지만 그러나 品格과 韻致가 高古하고 文詞의 含意가 정확하며, 그 재능 또한 어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²⁹⁾

일찍이 蘇軾이 〈祭柳子玉文〉이란 글에서 孟郊와 賈島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郊寒島瘦’란 말을 한 적이 있다. 孟郊의 시에는 寒苦한 말이 많고 賈島의 시는 清峭瘦硬함을 일컬은 것이다. 대략 北宋 末 전후에 살았던 張表臣의 《珊瑚鉤詩話》 卷1에서는, “시는 기운이 清高하고 深遠한 것을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格力이 雅健雄豪한 것을 빼어난 것으로 여긴다. 元稹은 가볍고 白居易는 俗되며 孟郊는 차갑고 賈島는 말랐는데 모두 病弊이다.(詩以氣韻清高深眇者絕, 以格力雅健雄豪者勝. 元輕白俗, 郊寒島瘦, 皆其病也.)”라고 말한 바 있다. 張戒는 위의 글에서 張表臣의 이런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孟郊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品格과 韻致가 高古하고 文詞의 含意가 정확하며 시 짓는 재주가 출중하다고 보았다.

28) 같은 책, 81-82쪽. 卷上 제21조. 韋蘇州律詩似古, 劉隨州古詩似律, 大抵下李、杜、韓退之一等, 便不能兼. 隨州詩, 韻度不能如韋蘇州之高簡, 意味不能如王摩詰、孟浩然之勝絕, 然其筆力豪瞻, 氣格老成, 則皆過之.

29) 같은 책, 79쪽. 卷上 제19조. 世以配賈島而鄙其寒苦, 蓋未之察也. 郊之詩, 寒苦則信矣, 然其格致高古, 詞意精確, 其才亦豈可易得.

7) 李賀

李賀의 시에 대해 일찍이 唐代의 杜牧은 〈離騷〉에 비유한 바 있는데, 張戒는 이것에 반대하며 지나친 논의라고 여겼다. 그 대신, 李賀의 시는 李白의 樂府에서 나왔는데奇怪的 점은 같지만 빼어남은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 李賀의 시에는 李白의 말은 있지만 李白의 운치는 없다고 평했다. 그리고 李賀는 말을 다듬는 것을 위주로 했지만 理致를 드러냄이 적은 것은 결점이라고 분석했다.³⁰⁾

中唐 시기에 대한 張戒의 논의는 역시 白居易, 元稹, 張籍에 관한 것이 주요 부분으로, 이들의 시가 사람들 마음속의 일을 잘 말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 표현이 직설적으로 흘러 함축적이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여겼다.

3. 晚唐

1) 杜牧

張戒는 杜牧의 시가 “뜻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의 뜻이 淺薄하고 다 드러나 餘韻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표현에서 함축과 餘韻을 대단히 중시하는 뜻을 내비쳤다.

2) 李商隱

張戒는 李商隱에 대해 長點과 不足한 점을 동시에 지적하였다. 우선, “李商隱, 劉禹錫, 杜牧 세 사람의 시가 대체로 律詩에 뛰어나지만 古詩는 잘 하지 못하며, 7언시에 특히 뛰어나고 5언시는 조금 약한데, 비록 佳句가 있지만 韋應物, 王維, 孟浩然的 ‘高致’와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여, 高尚한 情趣를 중시하는 뜻을 보였다.³¹⁾ 이와 더불어 張戒는 李商隱 시의

30) 같은 책, 94쪽. 卷上 제28조. 杜牧之序李賀詩云: “騷人之苗裔”, 又云: “少加以理, 奴僕命《騷》可也.” 牧之論太過. 賀詩乃李白樂府中出, 瑰奇譎怪則似之, 秀逸天拔則不及也. 賀有太白之語, 而無太白之韻. …… 賀以詞爲主, 而失于少理.

31) 같은 책, 85쪽. 卷上 제24조. 李義山、劉夢得、杜牧之三人, 筆力不能相上下,

훌륭한 점도 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사물을 읊는 것이 자질구레한 듯하고 用事가 偏僻된 것 같으나 시의 뜻은 매우 심원하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그의 시가 婦人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고만 보고, 세상을 위해 교훈적으로 警戒시키려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³²⁾

그 말은 淺近하나 뜻은 深遠하며,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작으나 그 종류를 취하는 것은 크다.³³⁾

위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 사항과 관련되는데, 하나는 李商隱의 시가 심원한 詩意를 나타내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李商隱의 시가 《詩經》의 詩教 정신을 잘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李商隱의 〈南朝〉시를 예로 들면 서, 이 시는 徐妃의 아름다움을 과장하여 뽐낸 것이 아니라, 바로 漢武帝를 풍자한 것으로, 李商隱 시의 훌륭한 점은 대체로 이러한 종류라고 보았다.

3) 溫庭筠

張戒는 溫庭筠의 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歲寒堂詩話》 卷上 제26조에서 말하길, 溫庭筠의 詩語가 모두 새롭고 교묘하여 처음에는 좋아할 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뜻이 無禮하고 그 格調가 지극히 낮으며, 그 힘줄과 뼈[主旨]가 淺薄하게 드러나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여기서 張戒가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溫庭筠이 《詩經》의 훌륭한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여 ‘溫柔敦厚’를 제대로 알지 못하

大抵工律詩而不工古詩，七言尤工，五言微弱，雖有佳句，然不能如韋、柳、王、孟之高致也。

32) 같은 책, 85쪽. 卷上 제25조. 詠物似瑣屑，用事似僻，而意則甚遠。世但見其詩喜說婦人，而不知爲世鑒戒。

33) 같은 책, 86쪽. 卷上 제25조. 其言近而旨遠，其稱名也小，其取類也大。

고 임금에게 無禮한 표현을 서슴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시가 格調가 낮고 含蓄美가 부족하다는 점이다.³⁴⁾ 이 두 가지 모두 張戒 시론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張戒는 晚唐의 시인으로 杜牧, 李商隱, 溫庭筠을 들었는데, 杜牧의 시에 대해서는 함축미가 부족한 점을 들었으며, 李商隱의 시에 대해서는 諷刺의 뜻을 나타낸 작품에 대해 비교적 높이 평가하였고, 《詩經》의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은 溫庭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張戒는 唐代의 많은 사람들의 시를 평하면서 자신의 詩學 主張을 제시했다. 그 주요 요점을 간추리면, 우선, 詩의 本質論에서 ‘시인의 마음속의 뜻을 말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詩教 傳統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시의 創作論에서는 함축적인 맛이 있어야 되고, 文彩 修飾도 겸해야 되며, ‘定法’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적절히 표현할 것 등을 중시하였다. 批評論에서는 ‘意’, ‘味’, ‘韻’, ‘氣’를 비평의 기준으로 삼았다.

Ⅲ. 宋代의 詩人 評價

張戒는 대체로 北宋과 南宋의 교차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까지 많은 시인들이 활동하였지만 《歲寒堂詩話》에서는 歐陽修, 王安石, 張耒, 蘇軾, 黃庭堅 등의 몇 사람만을 언급하였다.

《歲寒堂詩話》 卷上 제35조에서는 王安石과 歐陽修에 대해, “王安石은 단지 巧妙한 말만이 시가 되는 줄 알았을 뿐, 拙劣한 말 또한 시가 되는 줄은 몰랐고”, “歐陽修의 시는 오로지 뜻을 明快하게 나타내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평했다. 제31조에서는 張耒의 〈中興碑〉시를 평하여 인물 묘사가 그림자劇(影戲)을 할 때 쓰는 말과 같다고 評하였다.

張戒의 宋代 시인 評은 주로 蘇軾과 黃庭堅,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34) 같은 책, 91쪽. 卷上 제26조. 庭筠語皆新巧, 初似可喜, 而其意無禮, 其格至卑, 其筋骨淺露.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다. 張戒는 우선 蘇軾과 黃庭堅 등이 用事와 押韻에 너무 힘을 기울이고, 議論으로 시를 지으며, 기이한 글자를 꿰어 맞추고 엮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는 弊害를 지적했다.

蘇軾과 黃庭堅은 用事와 押韻의 工巧로움이 지극하고 극진하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면 시인의 한 가지 害로움이 되니, 後學들로 하여금 단지 用事와 押韻으로 시를 짓는 것만을 알게 하고, 사물을 읊조림이 공교로울지라도 뜻을 말하는 것이 근본이 됨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詩經》의 詩道가 이로부터 없어지게 되었다.³⁵⁾

《國風》과 《離騷》는 진실로 더 논할 것 없으며, 漢과 魏 이래로 시는 曹植에 이르러 妙해졌고, 李白과 杜甫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蘇軾과 黃庭堅에 이르러 무너졌다. …… 蘇軾은 議論으로 시를 짓고, 黃庭堅은 또 오로지 기이한 글자를 꿰어 맞추고 엮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는데, 이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장점은 얻지 못하고 먼저 그 단점을 취하니, 시인의 뜻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다.³⁶⁾

시란 시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데, 用事와 押韻에만 너무 신경을 기울이거나, 議論으로 시를 짓고, 기이한 글자를 꿰어 맞추고 엮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면, 시인의 뜻을 나타낸다는 시의 본질과 근본에서 벗어나게 되고, 뜻을 제대로 펼쳐내는 데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며, 또한 後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後學들도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한 결과, 시인의 뜻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詩經》의 詩道와 훌륭한 전통이 이로부터 없어지게 되었음을 張戒는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以議論作詩’는 훗날 南宋 末의 嚴羽도 《滄浪詩話·詩

35) 같은 책, 44쪽. 卷上 제3조. 蘇、黃用事押韻之工, 至矣盡矣, 然究其實, 乃詩人中一害, 使後生只知用事押韻之爲詩, 而不知詠物之爲工, 言志之爲本也. 風雅自此掃地矣.

36) 같은 책, 57-58쪽. 卷上 제10조. 《國風》、《離騷》固不論, 自漢、魏以來, 詩妙于子建, 成于李、杜, 而壞于蘇、黃, …… 子瞻以議論作詩, 魯直又專以補綴奇字, 學者未得其所長, 而先得其所短, 詩人之意掃地矣.

辨》편에서 ‘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와 더불어 宋詩의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以議論作詩’ 등은 唐詩와 대비되는 宋詩의 面貌이기도 한데 입장에 따라 평가가 갈려, 張戒는 唐代 詩人을 평할 때에도 그러하였듯이, ‘詩言志’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蘇軾과 黃庭堅 및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以議論作詩’, ‘以補綴奇字’, 用事, 押韻 등에만 빠져 지나치게 형식과 기교를 추구하며 시에서 시인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詩壇의 상황을 대단히 憂慮하였다.

張戒는 또 《歲寒堂詩話》 卷上 제35조에서, 黃庭堅은 다만 奇妙한 말만이 시가 되는 줄 알았을 뿐, 日常의 말 또한 시가 되는 줄은 몰랐으며, 蘇軾의 시는 오로지 苦心하여 工巧로운 표현을 만들고자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杜甫는 그렇지 않아 시를 지음에 매우 자유롭게 융통성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典範으로서의 杜甫 시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또, 송대의 시인들은 ‘以俗爲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의 俗語 사용 문제를 논의했으며, 蘇軾과 黃庭堅 등은 시에서 그런 시도를 하였다. 張戒는 이들의 俗語 사용을 杜甫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蘇軾과 黃庭堅 또한 俗語 사용을 좋아하지만 杜甫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³⁷⁾

張戒가 蘇軾과 黃庭堅 등을 비판하였지만, 用事라는 修辭技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또 이들의 성취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五言律詩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는 듯하지만, 宋代에 들어서는 오직 蘇軾만이 가장 뛰어났으며, 黃庭堅은 晩年에 뛰어났다.”³⁸⁾고 하여 이들이 五言律詩에서 뛰어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黃庭堅의 〈中興碑〉 같은 시는 杜甫의 경지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³⁹⁾ 단지 시의 본질 측면에서 볼 때 蘇軾과 黃庭堅, 江西詩派 등의 시가 제대

37) 陳應鸞, 앞의 책, 34쪽. 卷上 제1조. 近世蘇、黃亦喜用俗語, 然時用之亦頗安排勉強, 不能如子美胸襟流出也.

38) 같은 책, 쪽. 卷上 29조. 五言律詩, 若無甚難者, 然國朝以來, 惟東坡最工, 山谷晩年乃工.

39) 같은 책, 쪽. 卷上 32조. 若〈中興碑〉詩, 則真可謂入子美之室矣.

로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어 이에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張戒의 《歲寒堂詩話》에 보이는 唐宋 詩人論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張戒는 唐代의 시인들을 높이評했으나 唐代의 모든 시인들에게 무조건 讚辭를 보낸 것은 아니며, 批判을 가한 시인들도 적지 않다. 張戒의 唐代 詩人論은 杜甫에 焦點이 모아져 있다. 杜甫를 作詩의 典範으로 추앙하고 杜甫 詩의 특색을 詩의 本質 등과 연계시키며 이에 立脚하여 시인들을 論評했다.

張戒는 宋代의 시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주로 蘇軾과 黃庭堅, 江西詩派에 집중되었다. 張戒는 중국 古典詩의 발전 역사를 縱觀하면서 ‘詩言志’의 본질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蘇·黃 등의 詩가 지나치게 議論의 展開와 奇字의 追求, 典故와 押韻의 重視 등에 치우치며 시의 본질을 보다 잘 고려하지 않는 傾向 등에 대해 憂慮하며 비판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대처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張戒의 詩論, 내지 詩學觀은 단순하게 唐詩와 宋詩를 둘로 나누어서 優劣을 나누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揚唐抑宋’, ‘尊唐黜宋’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차라리 ‘宗杜’(杜甫) ‘誠白元’(白居易, 元稹) ‘誠蘇黃’(蘇軾, 黃庭堅)이라 일컫는 표현이 좀 더 사실에 근접한다고 생각된다. 송대에 이미 唐宋詩 優劣論爭이 시작되었지만 張戒는 아직 이것을 본격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嚴羽는 《滄浪詩話·詩辨》에서 “마땅히 盛唐을 法으로 삼아야 된다.(當以盛唐爲法)”고 말했으나, 張戒는 이런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는 張戒가 ‘世代가 지날수록 以前만 못하

다(一代不如一代)'고 보는 詩學觀을 제기하면서 문학 발전의 退化觀을 주장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⁰⁾ 그러나 《歲寒堂詩話》에서 ‘一代不如一代’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卷上 제33조이며, 이 말은 石刻의 書法과 관련된 對話 중에 상대방이 한 말이고, 그 내용도 詩學을 논한 것이 아니다.⁴¹⁾ 宋代의 상황을 張戒가 憂慮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가 과연 ‘文學退化論’을 제기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張戒는 단순히 唐과 宋의 시인들을 열거하며 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런 唐宋 詩人論을 통하여 宋代의 詩人들이 注目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1) 張戒는 杜甫 추앙의 시대를 살며 杜甫 詩의 특색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後人들은 杜甫 詩의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 杜甫 詩의 ‘眞髓’는 무엇인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2) 張戒는 詩法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詩壇에 처하여, 미리 定해진 法式의 틀에 매이는 것을 반대하며, 詩語의 자유롭고 適切한 運用을 주장했다. (3) 張戒는 雅俗 관련 論議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杜甫 詩의 俗語 運用 특색을 제기하면서 俗語의 運用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張戒는 唐宋 詩人論을 통해 詩의 本質과 作詩의 典範을 제시하고, 作詩에서 注意해야 되는 점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詩學 見解를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張戒의 《歲寒堂詩話》의 시론이 宋代 詩學史에서 갖는 意義이기도 하다.

40) 金華, 〈論《歲寒堂詩話》的文學退化觀〉(《作家》 2015年 第6期), 183쪽.

41) 陳應鸞, 앞의 책, 105쪽. 鄒員外德久嘗與余閱石刻, 余問: “唐人書雖極工, 終不及六朝之韻, 何也?” 德久曰: “一代不如一代, 天地風氣生物, 只如此耳.” 言亦有理.

<References >

1. Chen Liangyun. *The history of Chinese Poetics Criticism*. Jiangxi people's Publishing House, 1995.
2. Chen Yingluan. *Notes and Commentary on Sui Han Tang Poetry Talks*. Sichuan University Press, 1990.
3. Jin Hua. "On the View of Literary Degeneration in "Sui Han Tang Poetry Talks". *Writer Magazine* No.6, (2015).
4. Lee Chi-s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ng Dynasty's poetics & the superiority discussion of Tang-Song poetry". *Sheng Gu's Forum* No.24, (1993).
5. Lee Chi-soo. "Laws of Poetry studying according to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Sheng Gu's Forum* No.36, (2005).
6. Lee Chi-soo, "A Study on the Poetic Theory of Wu Hang's Huanxi shihu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30, (2006).
7. Lee Chi-soo.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gance and Inelegance' Poem Theory in the Poetry of the Song Dynast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77, (2018).
8. Wang Hongli. "On Zhang- Jie's View about Tang- poetry". *Journal of Suihus University* Vol.28 No.1, (2008).
9. Wang Shuizhao & Xiong Haiying. *History of Southern Song Literature*. People's Publishing House, 2009.
10.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Fenghuang Press, 2006.

< 참고문헌 >

1. 陳良運, 《中國詩學批評史》, 江西人民出版社, 1995.
2. 陳應鸞, 《歲寒堂詩話箋注》, 四川大學出版社, 1990.
3. 金華, 〈論《歲寒堂詩話》的文學退化觀〉, 《作家》 第6期, 2015.
4. 李致洙, 〈宋代 詩學의 發展과 唐宋詩 優劣論爭 研究〉, 《省谷論叢》 第24輯, 1993.
5. 李致洙, 〈宋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問題 研究〉, 《省谷論叢》 第36輯, 2005.
6. 李致洙, 〈吳沆 《環溪詩話》의 詩論〉, 《中國語文論叢》 第30輯, 2006.
7.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雅俗論의 背景과 특색 연구〉, 《中國語文學》 第77輯, 2018.
8. 王紅麗, 〈《歲寒堂詩話》中的唐詩觀〉, 《綏化學院學報》 第28卷 第1期, 2008.
9. 王水照·熊海英, 《南宋文學史》, 人民出版社, 2009.
10.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 Abstract >

In 《Sui Han Tang Poetry Talks》, Zhang Jie is focused on various poets of the past, especially Tang dynasty and Song dynasty based on his poetics. Although Zhang Jie highly appreciated the poets of Tang dynasty, but he did not unconditionally praise all the poets of the Tang, and there are few poets who were criticized. Zhang Jie's poetic theory of the Tang dynasty is focused on Du Fu. Zhang Jie revered Du Fu as an example model of composing poems and he linked some characteristics

of Du Fu's work with the essence of poetry, and commented on the poets based on it. Zhang Jie was critical of the poets of the Song dynasty, mainly focused on Su Shi and Huang Tingjian. Zhang Jie watched through developing history of Chinese classic poem, and worried about Su Shi and Huang Tingjian's overabund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the tendency of emphasis on allotment. The poetry of Zhang Jie is not simply trying to divide poetry of the Tang and Song into two and discuss the merits and demerits. Through the Tang-Song poetic theory, Zhang Jie expressed his view on some of the major problems that poets of the Song should pay attention to. (1) Zhang Ji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u Fu's work in a full and detailed way, and raised questions such as what and how coming generation will learn from Du Fu's poem, and what the 'essence' of Du fu's poem is. (2) Zhang Jie opposed to the pre-established framework of the form, argued for the free and proper operation of the words. (3) Zhang Jie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managing the folk words of Du Fu and suggested how to operate them.

Key Words : 張戒(Zhang Jie), 歲寒堂詩話(Sui Han Tang Poetry Talks), 唐代(Tang Dynasty), 宋代(Song Dynasty), 詩人論(Poet Discuss)

